

1차년도 사업평가 평균 이상... 학교-기업 교류 질 높여야

LINC+ 사업 1차년도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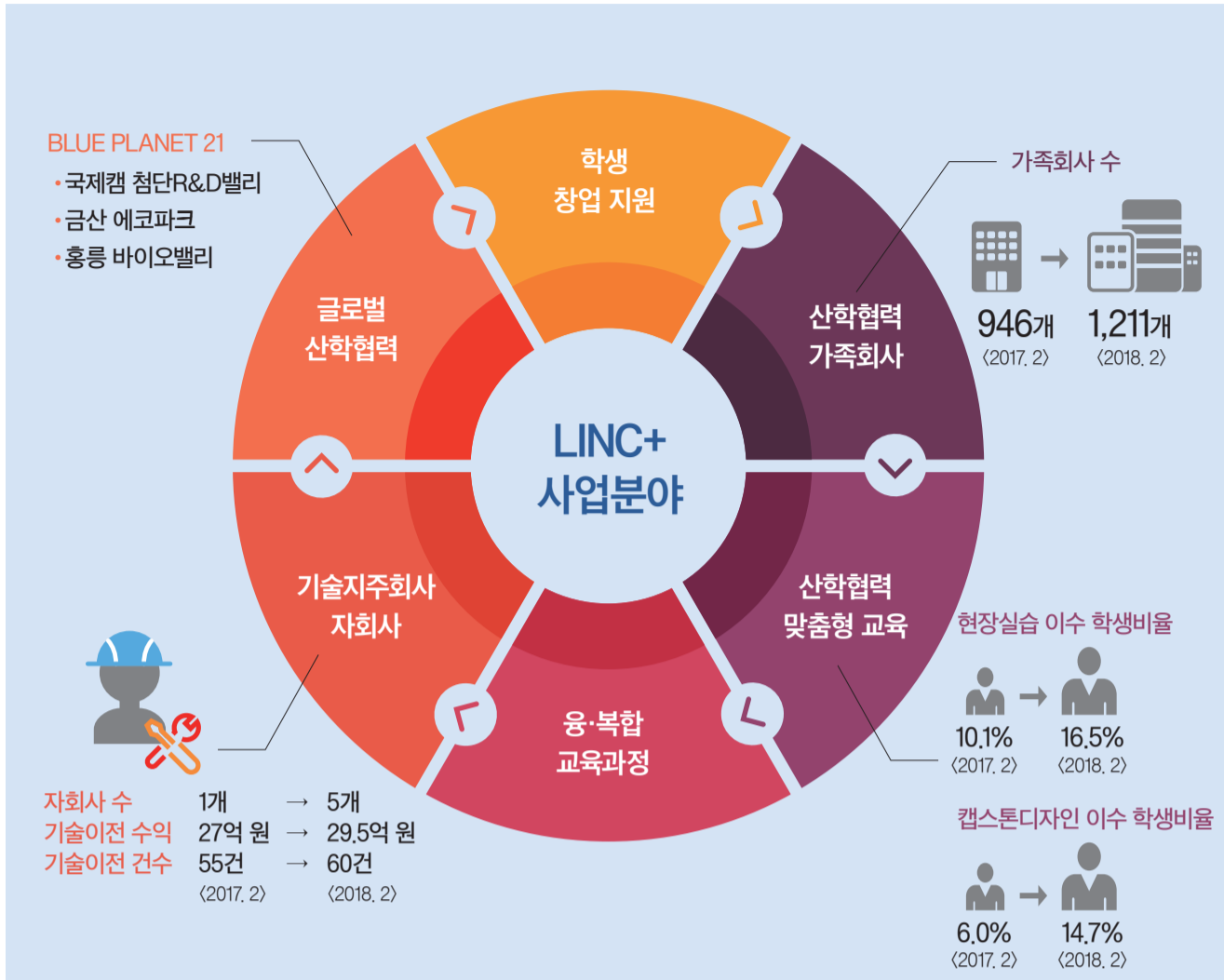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hu.ac.kr
최명규 기자 gyumyeong@khu.ac.kr

우리학교가 5년간 약 200억 원을 지원받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사업에 선정된 지 1년이 됐다. 우리학교는 체계적인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3: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됐다. LINC+ 사업의 전신인 LINC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기에 더 의미 있는 결과였다. 하지만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이행 실적을 평가하는 중간점검을 통과해야 한다. 오는 2019년 2월로 예정된 중간점검을 앞두고 1차년도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봤다.

1차년도(2017.2.-2018.2.) 사업기간 동안 우리학교 LINC+ 사업단은 6개 지역특화 산업 중점지원센터를 기반으로 산학협력 생태계를 구축했다. 산학협력성과분석센터, 산학융합교육센터, 창업교육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기업혁신지원센터, 글로벌 비즈니스혁신센터 등 모두 6개의 센터가 설립됐다. 특히 기업혁신지원센터는 산업체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으며, 산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콘텐츠를 확대했다.

LINC+ 사업단은 산학협력 맞춤형 교육 과정 참여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 중소·중견 기업과 사회맞춤형 교육 과정을 도입하고 17개 교육 과정을 신설했다. 신설된 교육 과정에 현장실습과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연계해 운영한 결과, 우리학교 현장실습 이수학생 비율은 2017년 2월 10.1%에서 2018년 2월 16.5%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이수학생 비율은 6.0%에서 14.7%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맞춤형 교육과정 참여 학생 수는 341명에서 413명으로 늘었다.

기업과 교육 및 연구협력을 맺는 '가족회사'의 수도 늘었다. LINC+ 사업단은 지난 1차년도 사업기간 동안 265개의 가족회사 유치에 성공했다. 2017년 2월 기준 946개였던 가족회사는 1년 새 28% 증가한 1,211개로 확대됐다. 가족회사 유치 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도 마련됐다. 가족회사 유치 시 교원이 건강 10점의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교수업적평가를 개편했다. 가족회사 신청 채널을 신설하는 한편,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가족회사별 맞춤형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LINC+ 사업단 이영주 사무국장은 "현재 가족회사 수는 많지만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의 수



는 소수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 사무국장은 "LG디스플레이가 정보 디스플레이학과 졸업생 중 일부에 대해 자사 취업을 보장하는 것처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쌍방향 교류를 앞으로 구축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학(원)생 창업 지원책도 확대됐다. 대표적으로 오픈랩이 서울캠퍼스(서울캠) 행복기숙사 1층과 국제캠(국제캠) 학생회관 1층에 신설됐다. 오픈랩에선 창업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경영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KHU Valley' 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기술지주회사 자회사는 LINC+ 사업 1차년도 사업기간 동안 4개가 신설됐다. 2017년 ㈜피부생명공학센터와 ㈜케이에코텍이 설립됐으며, 2018년 상반기 ㈜씨에이티비텍과 ㈜3D가 설립됐다. 이로써 2009년 설립된 ㈜한방바이오를 포함해 모두 5개의 기술지주회사 자회사를 가지게 됐다. 하지만 올해 신설된 4개 자회사의 매출실적은 미비하다. 기술지주회사 운영의 본부장은 "이들 자회사는 설립초기로 경영·재정 상

황이나 매출 정도가 아직 걸음마 단계다"라며 "학교기술을 통해 설립된 회사인 만큼 학교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자회사를 추가적으로 설립하는 계획도 접근 중"이라고 덧붙였다.

기술이전 수익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LINC+ 사업단에 따르면 2016년 27억 원이던 기술이전 수익은 2017년 29.5억 원으로 2.5억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기술이전 건수도 2016년 55건에서 2017년 60건으로 증가했다.

융합전공 교육과정도 개설됐다. 지난해 학사제도개선 TF에서 처음 윤곽을 드러낸 융합전공은 지난 5월 15일 대학평의원회가 학칙개정에 합의하기까지 두 번의 우여곡절을 겪었다. 앞선 3월 20일 대학평의원회에 융합전공 개설과 관련된 안건이 상정됐지만 부결됐고, 이후 4월 3일 대학평의원회에서도 융합전공 학칙개정 안건은 다시 부결됐다. 당시 교수회의 이성근 의장은 "관련 졸업자 수를 볼 때 연계전공은 성공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융합전공을 시행

하기 전 연계전공 실패 이유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앞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학칙개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융합전공에 관련된 자료를 구성원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며 구성원 간 소통의 부재도 지적했다.

국제캠 교무처 김창우 처장은 "융합전공은 연계전공과 달리 제1전공으로 이수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취업에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융합전공 도입 취지를 밝혔다. 덧붙여 "LINC+ 사업에서도 융합교육은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사업 계획 이행을 위해 학칙개정이 필수"라고 밝힌 바 있다.

글로벌 산학협력 강화를 위해 'Blue Planet 21' 준비위원회도 조직됐다. Blue Planet 21은 바이오헬스, 미래과학, 인류문명 3개 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점교 글로벌 협력 사업이다. 이에 세계적인 융·복합 R&D 사업 및 교류실천 프로그램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국제캠 15만평 부지에 R&D밸리를 구축해 첨단사업을 육성하며, 총복 금산 40여만 평 부지에는 인류건강과

평화를 추구하는 세계적인 친환경 연구단지 '금산 에코파크' 건립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가 추진 중인 홍릉바이오밸리를 통해 타 대학, 의료기관 등과 협력으로 의료사업을 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 연구단지 개발 사업은 대규모 자금이 필요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 실제로 이 사업은 Blue Planet 21 논의가 가시화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사실상 성과 없이 정체돼 있기도 하다. LINC+ 사무국 허균영 부단장은 "LINC+ 사업단 자체 노력만으로 이들을 이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대학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계를 짚었다.

우리학교는 한국연구재단이 지난 2월 진행한 1차년도 사업평가에서 수도권 대학 11개의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LINC+ 사업단 허균영 부단장은 "LINC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현재 당장 마주한 과제는 2차년도 중간점검이다"며 "반드시 해내야 하는 사업이다"고 말했다. 2차년도 중간점검을 통과하기 위한 과제로 이 사무국장은 "학교와 연결된 기업과 쌍방향 교류를 이뤄내는 것이다"며 "교육부는 앞으로 이러한 쌍방향 교류가 잘 정착되어 있는 학교에 높은 점수를 줄 것 같다"고 예상했다.

1차년도 평가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지적사항은 '구체화'였다. '예산의 input, process, outcome'으로 이뤄지는 환류 시스템을 설명한 이 사무국장은 "환류 시스템의 실제 피드백 및 개선이 부족하다"며 "이러한 구체화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방대한 사업량에 대해서 허 부단장은 "LINC+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당시 학교 모든 기관에 좋은 사업을 문의했고 이를 담았기 때문에 사업량이 방대해졌다"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LINC+ 사업단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LINC+ 사업에 관해 허 부단장과 이영주 사무국장이 입을 모아 말한 것은 '학내 구성원의 참여'였다. 허 부단장은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학내 구성원들의 참여가 없다면 받은 예산은 써보지도 못하는 셈이다"며 "학내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참여를 위해 SNS와 광고를 많이 내고 있고 더 원활한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형·전임교원강의 비율 상승, 교육여건 개선은 '글썩'

장유미 기자 yummy0825@khu.ac.kr

2018학년도 1학기 전체 강좌 수가 작년 1학기에 비해 400개 가량 증가했고, 소형강의(수강인원 20명 이하) 비율과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높아졌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여건이 개선된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30일 대학알리미에公示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학기 우리학교 전체 강좌 수는 4,371개로 지난 해 1학기에 비해 408개 증가했으며 직전 학기에 비해선 529개 증가했다. 전체 강좌 수는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1학기 처음으로 증가했다. 2016학년도 1학기 대비 2017학년도 1학기의 전체 강좌 수 증가 폭이 145개 인 것을 고려하면 올해 증가 폭이 상당한 수준이다.

특히 증가분 대부분이 소형강의 혹은 중소형강의(수강인원 20~50명)에 해당한다. 소형강의는 작년 1학기에 비해 255개 증가했다. 이 밖에 중대형강의(수강인원

50~100명), 대형강의(수강인원 100명 이상)는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했다. 강의 크기별 비율을 살펴보면 소형강의는 28.3%로 지난해에 비해 3.5%p, 수강 인원 21명~30명 강의는 18.8%로 지난해에 비해 2.4%p 증가했다. 반면 대형강의 비율은 거의 변함 없거나 감소했다. 서울캠퍼스 학사지원과 김용화 과장은 "캡스톤 디자인과 독립연구 과목이 많이 생겼다"며 "독립연구는 수강생이 1명, 캡스톤 디자인은 3명일 경우에도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의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캡스톤디자인은 산업현장의 문제해결 능력 함양을 위해 작품을 설계하고 제작하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독립연구는 학생들이 직접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본인이 섭외한 지도교수와 한 학기 동안 연구를 진행하는 자유이수 교과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강의와는 다른, 특수한 형태의 강좌이다.

하지만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학의 평균적인 소형강의 비율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18학년도 1학기 우리학교보다 높은 소형강의 비율을 보인 대학은 ▲한국외대 51.1%, ▲한양대 48.0%, ▲성균관대 31.2%, ▲연세대 30.5%, ▲서강대 30.7% 다.

2018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강의담당율의 경우 61.1%를 기록해 지난 해 1학기보다 4.2%p 증가했다. 2016년엔 교원강의담당율을 공시해 이뤄진 이래 처음으로 50%를 넘긴 56.1%를 기록한 바 있다. 이후 2학기엔 55.4%, 2017학년도 1학기엔 56.9%, 2학기엔 56.7%를 기록해 계속적으로 55~56%대에 머물렀지만 이번 학기 최초로 60%를 넘겼다.

전임교원강의담당율의 변화도 소형강의인 캡스톤 디자인과 독립연구 과목 개설과 관련이 있다. 국제캠(국제캠) 학사지원과 한상과장은 "작년부터 캡스톤디자인과 독립연구 과목의 운영을 확대해왔다"며 "두 과목은 전임교원만 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8학년도 1학기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학 전임교원강의담당율을 살펴보면 ▲중앙대 67.2%, ▲성균관대 62.2%, ▲한양대 59.5%, ▲연세대 55.5%, ▲서강대 54.1%다.

부정청탁신고센터 홈페이지 오픈 안내(http://clean.khu.ac.kr/)

경희대학교 부정청탁신고센터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대학운영을 위하여 감사행정원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사건에 대한 법률 검토와 조사를 거쳐 위원회 소집 및 제반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교직원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진행하여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와 내용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대학경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관행으로 용인해 왔던 청탁이나 접대 행위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청탁금지법의 대학 내 안전적 정착을 통해 교직원의 직무윤리 확립 및 부패방지 생활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청탁금지법 교육 및 자료 제공**
연 1회 이상 온라인 법정 교육 제공, 청탁금지법 관련 자료 제공 및 사례 검색 지원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접수**
'Q&A' 메뉴를 통해 1:1 청탁금지법 문의 가능

***부정청탁 관련 신고 접수**
·부정청탁 ·수수금지금품 ·초과사예금신고(외부강의등 관련)



신고인: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누구나 가능(본교 교직원 및 외부인)
신고대상: 경희대학교 소속 교직원
신고방법: 부정청탁신고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 신고하기 메뉴에서 신고 → 신고처리상태 메뉴에서 확인
※ 외부강의등 신고는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고 가능

경희대학교 부정청탁신고센터